



매스타트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의 집합체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장거리 간판 이승훈(맨 앞)은 매스타트의 강자다.

스포츠동아DB

400m 트랙 16바퀴...몸싸움도 OK!

아는 만큼 재미있다

빙속 매스타트

최대 28명이 동시에 총 6400m 트랙 질주 안전 위해 스케이트 앞·뒷날 동글게 깎아 1600m마다 1~3위에 점수...순위 변수 동료들과 타 선수그룹 견제 등 협업 중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매스타트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가운데 유일하게 순위를 매겨 메달 색깔을 가리는 종목이다. 100분의 1초

라도 빨리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기존의 스피드스케이팅 종목과 다른 점이다. 최대 28명의 선수가 레인에 구애받지 않고 400m 트랙 16바퀴, 총 6400m를 달려야 하는데, 이들이 총성과 함께 일제히 달려 나가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기존의 종목과 스케이트 날도 다르다.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허용되는 터라 보호장비를 갖춰야 하고, 스케이트의 앞·뒷날은 반지름 1cm의 크기로 동글게 깎아야 한다. 100분의1초를 다투는 기록경기가 아니기에 가능한 조치다.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기존의 종목과 차이가 있다. 4바퀴(1600m)마다 1~3위에 각각 5·3·1점을 부여하는데, 최종 1~3위에게는 각각 60·40·2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중간점수로 인해 메달 색깔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12바퀴째까지 1위를 유지했다고

해도 최종 2위로 끝난다면 총점 55점이 돼 최종 1위의 점수를 넘어설 수 없다. 레이스 도중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선두와 한 바퀴 넘게 격차가 벌어지면 실격 처리된다.

매스타트는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인코스나 아웃코스를 바꿔 타야 하는 기존의 스피드스케이팅 종목과 달리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장거리 종목인 5000m보다 1400m를 더 달려야 하기에 그만큼 체력소모가 크고, 몸싸움도 불가피하다. 동료와 협업도 중요하다. 돌아가며 선두그룹을 형성해 타 선수들의 체력을 소진하는 전략이 그 일부다. 이승훈(30·대한항공)이 이 종목 남자부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손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000m와 1만m, 팀 추월 등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선수로 오랫동안 활약하며 지구력을 키웠고, 과거 쇼트트랙 선수

출신으로 몸싸움에도 능하다. 2017~2018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에서도 랭킹포인트 218점으로 당당히 1위를 달리고 있다.

쇼트트랙 선수들의 강인한 세밀한 코너링은 인코스나 아웃코스를 가리지 않고 상대를 추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기존의 쇼트트랙 선수들 다수가 매스타트로 전향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남자부 올리비에 장(캐나다), 루슬란 자카르프(러시아)가 대표적인 예다. 2014~2015시즌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대회(네덜란드 헤이켄벤)이 이 종목 우승자인 요릿 베르스마(네덜란드)는 2014소치동계올림픽 남자 1만m 금메달리스트다.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종목의 강자와 쇼트트랙 출신 선수들의 자존심 싸움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거리다. 강선 기자 posterboy@donga.com

지구력+쇼트트랙 경험...이승훈, '첫 금'이 기대되는 이유

남자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이승훈(30·대한항공)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4개 종목에 출전할 수 있다. 평창대회부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매스타트는 물론 5000m와 1만m, 팀 추월까지 최대 4개의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다. 물론 초점은 본인인 세계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매스타트에 맞추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녀 매스타트는 2월

24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이승훈이 매스타트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기대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빙상선수로서 그가 걸어온 독특한 경력, 장거리선수로 특화된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신체적 요소인 지구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이승훈은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빙상에 입문해 중학교 때 쇼트트

랙으로 전향했다. 이어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쇼트트랙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자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복귀했다. 쇼트트랙을 경험한 덕분에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돌아온 뒤 코너링에서 강점을 보였고, 이는 밴쿠버동계올림픽 남자 1만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 획득에 큰 도움이 됐다. 하물며 쇼트트랙 요소가 가미된 종목이 매스타트인 만큼, 이승훈이 이 종목 세계최강자로 부상한

것은 당연지사인지도 모른다.

이승훈은 탁월한 지구력을 바탕으로 장거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지구력이 뛰어난 덕분에 장거리에서 승승장구했고, 장거리선수로 꾸준한 훈련을 거친 덕분에 지구력이 향상됐다. 스스로도 "지구력에 만족한다"며 자신감을 보일 정도다. 피나는 훈련을 견디며 정신력 역시 명달아 상승했다. 400m 트랙을 16바퀴나 도는, 즉 6400m의 장거리를 질주하는 매스타트에서도 결국은 지구력과 끈기가 필수다. 이승훈의 강세가 지속되는 이유다. 정재우 전문가 기자 jace@donga.com



박승희

충돌 잦은 쇼트트랙...재출발 조건 까다롭네 '아펙스 블럭' 통과 전 충돌 시 재출발 가능

호기심 천국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안 좋은 기억이 많다. 남자부 '노메달'과 여자부 개인전 금메달 1개의 여파는 빙상 강국으로 뽑히는 우리나라에 꽤나 큰 충격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있다. 여자부 500m에 출전했던 박승희(26·스포츠토)가 '여울한 일'을 당한 사례다. 박승희는 당시 결승전 레이스 도중 상대 방해로 인해 금메달을 놓쳤다. 좋은 스타트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나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던 엘리스 크리스티(영국)와 충돌해 코너를 돌던 도중 넘어졌

다. 크리스티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박승희와 2위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를 모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4위에 뒤쳐져 있던 리 지안루(중국)가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가져갔다.

박승희는 충돌이 있을 후 곧바로 일어나 다시 레이스에 임했다. 투혼을 보이며 동메달을 획득했으나 아쉬움은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박승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은 없었다. 쇼트트랙 규정 상 충돌을 일으킨 크리스티의 실격만 결정됐을 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수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쇼트트랙은 치열한 몸싸움으로 충돌이 잦은 종목이다. 이로 인해 실격과 '어드벤처'가 종종 등장하는 종목이기도 하다. 예선을 치르던 선수가 충돌로 피해를 입으면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어드벤처'를 받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결승전에서는 예외다. 메달 색깔이 정해지는 결승전에서 다음을 위한 '어드벤처'란 없기 때문이다.

쇼트트랙 결승전에서도 재출발은 열릴 수 있다. 단, 그 조건이 까다롭다. 쇼트트랙은 선수들의 레이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보기 위해 트랙을 따라 타원형으로 검은색의 '블럭'을 위치시킨다. 이중 첫 번째 코너의 4번째 블럭을 '아펙스(apex)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 블럭을 돌기 직전에 한명이라도 넘어지면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재출발이 가능하다. 경기 중에 선수가 넘어져 트랙에 남아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역시 재출발 여건이 성립된다.

정운상 기자 award@donga.com

"남북단일팀 종목은 여자 아이스하키만"

문제부, 단일팀 논란 관련 입장 표명 IOC·IIHF에 엔트리 확대 요청

논란을 빚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자 아이스하키에 국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부 관계자는 15일 "피겨나 봅슬레이 등에서 단일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스하키 종목 특성상 1~2분 간격으로 선수가 교체되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 시) 우리(남한) 선수들이 받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아이스하키대표팀 관계자들과 단일팀 구성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서 개최될 남북대표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북한 선수단 규모는 물론 단일팀 구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율한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후속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위해선 IOC와 함께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및 다른 출전국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IOC와 IIHF도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게 조성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IOC와 IIHF에 23명인 엔트리를 남북 단일팀에 한해 늘려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전문가 기자

평창통신

평창성화, 21일부터 강원도 달린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을 알릴 성화가 21일부터 철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강원도에서 봉송된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도착해 제주도, 충청도, 영·호남을 달린 성화는 수도권을 거쳐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로 넘어간다. 화천(22일), 양구(23일), 인제(25일), 고성(26일), 속초(27일)를 비롯해 양양(28일), 춘천(29일), 홍천(30일), 횡성(31일)을 달린다. 이어 다음달 원주(2일), 영월(3일), 태백(4일), 삼척(5일), 동해(6일)를 거쳐 올림픽이 개최되는 정선(7일), 강릉(8일), 평창(9일)에 도착한다. 성화는 강원 전역 18개 시·군을 달리며 각 지역이 간직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세계에 소개할 예정이다.

10명 중 7명 "한국 순위 5위 이내"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는 15일 직장인 539명을 대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를 5위권 안쪽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위(23.2%)가 가장 많았고, 이어 4위(20.2%)~2위(5.9%)~1위(2%)의 순이었다. 이밖에 '6~10위'는 21.4%, '10위권 밖'은 11.1%로 나타났다.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종합 4위(금8·은4·동8개)다. 직장인들은 또 평창동계올림픽에는 '매우 관심 있다(36.2%)'고 밝힌 반면 평창동계패럴림픽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36.9%)'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직접 관람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자 '계획 없다(79.4%)'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캐나다 피겨스타 쉐, 평창행 확정

캐나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간판인 패트릭 쉐(28)이 평창행을 확정했다. 캐나다피겨스케이팅연맹은 15일(한국시간) 쉐를 포함한 17명의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참가선수를 발표했다. 국제빙상연맹(ISU)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3회 우승에 빛나는 쉐는 13일 선발전전을 겸한 2018캐나다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르며 평창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쉐에게는 세 번째 올림픽이다. 2010년 밴쿠버대회에선 5위에 그쳤고, 2014년 소치대회에선 남자 싱글과 팀 이벤트(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